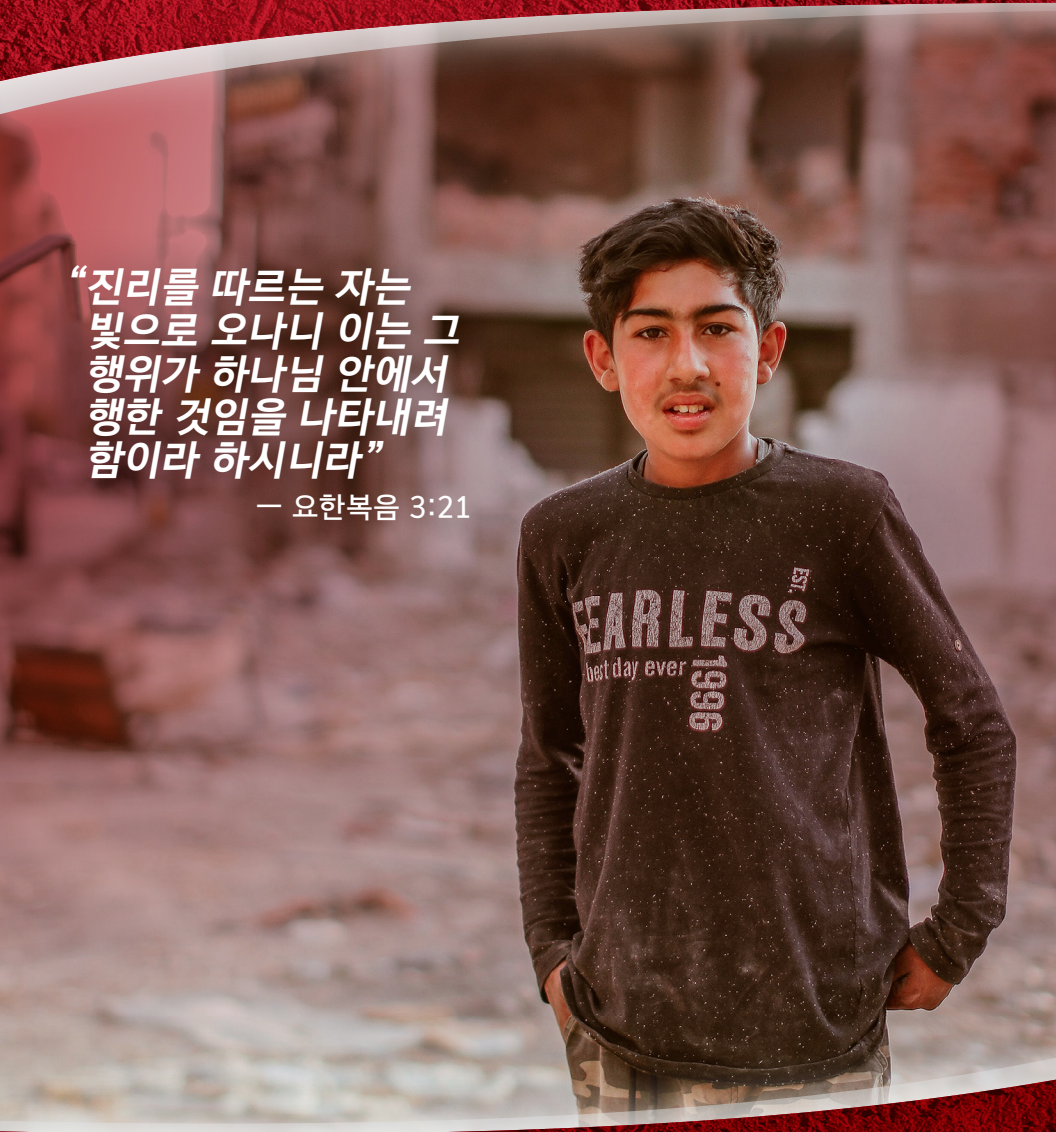
특별선교주일

연합감리교구호주일

긍휼을 실천하기: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



열린 가슴, 열린 마음, 열린 문.
한인연합감리교회®

특별선교주일

연합감리교구호주일

긍휼을 실천하기: 하나님의 빛으로 살기



연합감리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들은 연합감리교구호주일을 지키며 구호위원회(UMCOR)를 위한 특별선교헌금을 드립니다. 구호위원회는 우리를 대신해 재난에 대응하는 교단 산하 기관입니다. 수백만의 연합감리교인들이 함께 드리는 구호주일 특별선교헌금은 이 기관의 운영비를 충당하며, 구호위원회가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신속히 대응하게 합니다.

예를 들어, 2022년 9월 허리케인 이언(Ian)이 플로리다주 카요 코스타에 상륙했고, 제인*(69세)과 아들 존*(31세)은 집이 수리될 때까지 기부된 캠핑카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.



연합감리교인들의 관대함으로 마련된 200만 달러의 장기 복구 지원금이 구호위원회를 통해 전달되었고, 제인과 존과 같은 이재민들을 돕고 있습니다. 이 보조금은 2022년 11월 이언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발생한 허리케인 니콜(Nicole)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돕고 있습니다.

플로리다주 레이크랜드제일감리교회의 선교 디렉터인 포레스트 화이트는 제인과 존을 도운 봉사자 중 한 명입니다. 포레스트는 수로를 파는 일 외에도 제인이 평생 간직해 온 유품들을 정리하는 가슴 아픈 과정을 함께했습니다. 그는 제인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고 그녀의 아들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. 존은 포레스트에게 "다음 폭풍이 오면 나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고 싶다"라고 말했습니다.

포레스트는 제인과 아들과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리면서, "우리가 떠날 때 그들은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나은 상태에 있었습니다"라고 말했습니다. "그리고 언제나 그랬듯, 그들이 나눠준 것들 덕분에 우리도 더 나아졌습니다."

**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했습니다.*

후원 방법:
체크 메모난에 "연합감리교구호주일"이라고 적어 소속 교회에 헌금하세요. UMC.org/SSGive 에서 온라인으로 후원하시거나 월 정기 후원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.

열린 가슴, 열린 마음, 열린 문.
한인연합감리교회®